

# 나의 建築觀

(一名 建築家の 辯)

崔 昌 奎

新進建築研究所 代表  
前 建築家協會長

若冠에 建築科를 나와 今日에 이르기까지 31年! 그동안 나라와 地域을 轉轉 하면서 建築을 한답시고 人生의 三分之 二를 걸어 왔다. 數 많은 先人들의 高邁한 뒷길을 제 나름대로 허덕이며, 허덕이며 걸어왔다. 아들의 갈길은 아버지 오신 길이라면 流行歌詞 같은 이야기지만, 東西의 巨匠들이 걸어간 길은 그리 순탄한 길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안다.

이제 새삼 “나의 建築觀”이란 巨暢한 題目은 속스러울 뿐이다. 오직 그동안 나는 建築을 이렇게 생각했다. 或은 建築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라는 程度의 確信없는 思念들의 片片을 적어볼 뿐이다. 現代人들은 謙讓은 安價한 妥協이라지만 그래도 美德임엔 틀림없다.

獨逸의 大思想家인 「니이체」는 “人間은 일찌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依해 자라났다. 구태여 人間이란 極楷를 애써 버리려고 하지 말라. 大自然이 要求할 때 저절로 벗겨진다” 라고 말했다. 即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그것은 흔히 말하는 環境이다. 建築이란 바로 이 人間環境을 創造해내는 일이 되겠다. 그러므로 人間에 關한 모든 일을 다루어야만 하게 된다. 社會的, 物質的, 精神的, 心理的, 生理的 等等 너무도 多樣한 問題들이 包含되어 있는 人間環境을 制限된 時間(人間의 一生)에 予言이나 解決한다는 것은 至難한 一임엔 틀림없다. 따라서 社會는 建築家を 唐突한 무리로 알고 있고 建築家は 建築家대로 社會가 그들을 背信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 自身이 社會를 不信하게 되면서도, 늘 現在에 살면서 未來의 胎兒로서 自處하고 오직 人類未來만을 目標로 하는 形成力을 기르고 知的인 過程과 手段으로서 그 胎兒를 發育시켜 나가는 人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가까운 周邊에는 普遍的인 文明의 目的을 利害競争과 厚顏無恥의 習慣을 만들어내고, 使命과 道德을 社會職能으로서 特權을 만들어내는 政治나 便利나 實利나 合理가 빛어낸 機械文明과 科學文明이 似而非權威를 만들어내어 公害라는 人類滅亡의 毒藥等 其他 不信, 不條理, 不勞에로의 僥倖性같은 醜惡한 障隘物들이 너무도 많아서 建築家들의 未來로 向하는 行路는 至難한 일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建築自体가 그 醜惡한 것들로 困해 消滅하거나 滅亡할 순 없기에 또는 그런 것들을 職業으로 가질 수 없기에 建築家들은 建築을 扶했고, 人類의 問題가 되는 모든 것에

發言하고 予言하고 造形하는 것이다. 人間環境의 淸澄을 爲한 試圖나 表現은 建築家들의 權限이요, 知慧이요, 本能인 것이다. 그들은 그問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問題視하지도 않고, 오직 그것을 解決할 試案과 可能性을 表現하고 提示할 뿐이다. 이 試案들은 將來成功을 暗示하는 가장 意慾的인 徵兆인 것이다.

人間은 여간해서는 現實에 滿足 못하는 動物이다. 滿足 못하기에 發展(?)이 있었다. 그 發展이 먼 훗날 우리를 滅亡시키더라도 人間을 爲해서라는 大前提가 붙어있었다. 하지만 十九世紀부터의 産業革命서부터 始作된 機械文明과 現來의 科學文明의 눈부신 發展들은 皮相的인 滿足과 感動을 가져왔지만 人類를 害치는 公害도 같이 가지고 왔다. 人間의 高貴한 生命을 威脅하는 公害나 人間自滅을 內包하고 있는 核武器 등을 防止할 수 있는 最後의 堡壘는 政治도 宗教도 科學도 아닌 오직 藝術뿐인 것이다. 卽 人類의 快適環境의 創造는 大量生産이나 大量消費가 公害의 原因이고 보면 또는 平安과 實利만이 人間의 幸福의 要素가 될 수 없다고 보면 結局은 高度化된 原始主義的인 思考와 生活을 할 수 있는 環境과 與件만이 可能하다는 것을 理解시키고 引導하는 일이 가장 重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 環境創造라는 일을 天職으로 삼고 있는 建築家들을 社會는 우습게 알고, 저버리고 있지만 그들은 멀지않아 建築家들을 切實히 必要로 하고 願할 것은 틀림없다.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이 地球上에 살아남으려면 淸澄한 環境이 必要하고, 그 環境을 建築家들이 創造해 내기 때문이다.

長久한 人類歷史의 全部는 親할 수 없는 環境에 人間化한 秩序를 創造해 온 人間努力의 記錄이고 同時에 人間이 속삭이고, 중얼대고, 외치고, 울부짖은 數 많은 言語中에서 가장 誠實하고 가장 創造的인 言語들만을 收錄한 것이 바로 人間歷史일진데, 自然環境과 同化할 수 있는 人間生活體系의 發見! 더욱 快適하고 淸澄한 人間環境의 創造가 卽 그언제가 誠實한 言語로서 바로 人類歷史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我們 誠實하게 創造한다는 것에 對한 眞意를 알게되며 人間을 爲한 環境問題를 어떤 技術的인 問題와 같이 解決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 것이며 感情과 人格과 思想과 倦怠와 好奇心을 Computer도 政治家도 宗教도 이問題만을 解決할 순 없고 다만 建築家(藝術家)들만이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따라서 藝術家들은 늘 反政治, 反宗教的이 되고 政治와 宗教는 늘 反藝術的이 되어 있다는 理由이기도 하다.

建築家는 그들의 資質과 靈感과 손과 人格과 本能으로서 機械文明이나 科學文明의 盲點을 과해치고 그 危險性을 未然에 對備하고 生命을 威脅하는 公害를 消滅시킬 義務와 能力을 가지고 있고 또 實踐에 옮겨가야하는 것이다.

建築家는 解決手段의 豊富性에 反하여 目的의 不確實性에 關한 原則은 建築을 阻害한다는 것과 無意味한 犠牲이나 忠誠心을 要求하는 따위의 理論이나 理念을 研究해내는 것보다도 環境이나 造形問題에 腐心하고 虛勢와 僞裝과 宣傳만이 充溢한 社會에서라도 大衆이나 時代가 要求할 때만이 建築을 創造하는 것이고 自己를 爲함이 아닌 남을 爲한 卽 人類를 爲한 作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藝術의 純粹性에서도 그러하거니와 建築이 藝術이라는 眞意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建築家は 自身の 資質과 靈感도 必要하지만 社会나 大衆의 願望이나 刺戟이 없이는 無力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것은 建築家が 社會나 人類의 願望의 가장 充實하고 創造的인 媒介役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人類가 要求하는 建築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所望하는 環境이란 어떤 것일까? 果然 安逸하고 便利하고 機能的이고 合理的인 것일까? 先人들의 體驗에서 얻은 即興的인 規範的인 意味를 가진 術語에 充實한 것일까? 或은 芸術의 本質에서 우려나온 定義에 符合된 것들일까? 이런 疑問은 무한히 連發될 수 있겠고, 어느 것이 가장 옳다고 할 수는 없다. 建築自体가 지니고 있는 多樣한 意義는 이런 몇개의 規範이나 定義나 術語로서 規定지을 수도 없는 것이다. 無意識에서, 自己의 知識範圍를 超越해서 구차스러운 束縛與件을 떠나서 超人間的인 境地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 工學的인 面과 經濟的인 面이, 또는 技術的인 面이 꼭 따라오게 마련인즉 問題는 더욱 複雜해져만 가는 것이다. 特히 人間環境이란 問題가 擡頭됨엔 心理學, 未來學, 生態學, 社會學, 經濟學的인 複合的인 反映이 加味되어야만 하겠는데, 그러면서도 試圖이기 때문에 時間과 過程이 없이는 結果가 나올 수 없고 그 時間의 長短如何에 따라 建築家의 一生이 限定되어 있으니 自己가 生覺한 所期의 結果를 보겠다는 것도 不可能할 뿐더러 建築自体가 끝까지 試圖임에 結果를 바라는 것 조차가 愚鈍한 일이 된다.

“現實的인 面에서 簡單히 좋은 建築이란?” 할 때 簡略한 答으로선 建築家와 建築主와 施工者와의 三者의 呼吸이 合致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三者呼吸의 合致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即 建築主는 一般的으로 耽慾的이고 無知하고 審美度가 低質인 境遇가 많고, 마치 自己의 不當한 所望이나 慾求도 建築家가 다 解決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施工者는 營利業者임에 利潤의 追求가 그들의 目的이다. 하물며 이들은 利益追求 以外엔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兩者와 建築家가 呼吸이 合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現近의 數 많은 建築物들이 物議를 이르고 批判의 對象이 되는 理由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는 建築主나 施工者 以外에도 大衆의 建築에 對한 概念이나 理解度의 貧困! 審美度의 低質! 權力의 橫暴! 感情 謀略 嫉妬 等 人間社會의 醜惡한 모든 것들이 建築에 對해 集中影響을 주고 있으니 建築의 行路는 갈 수록 險難할 뿐이다. 덧붙여서 수많은 制御規定, 法令, 細則 等 이루어 헤아릴 수 없을 程度의 障害條件들이 純粹建築의 試圖를 가로막고 있는 現今이다.

注文과 請求書로서 建築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限, 命令이나 指示로 建築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限, 돈만 주면 建築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限, 自己의 建物에 對한 所望은 建築家가 다 解決해 준다고 믿고 있는 限, 絶對的인 權力이 絶對的인 經濟力이 建築을 이룩한다고 알고 있는 限, 훌륭한 建築은 絶對的으로 이루어질 순 없다.

現近 歐美文明圈에선 “建築은 이미 使用이나 目的이전의 空間藝術이다.” 또는 “現代 建築은 그 結果보다도 그 過程과 手段을 重視한다.” 即 空間과 時間이 現代建築의 主要 基本이라는 것을 明示하고 있음은 現代哲學에서 人間의 가장 貴重한 生命의 定義를 “生命=時間+空間”이라는 原理에 基因함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思潮는 彼岸의 火災가 아니고 人間社會의 哲理라며는 우리에게도 適用되는 것이다. 果然 이러한 말을 우리 社會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는 큰 疑問과 恐怖가 느껴지는 것이다.

“時間+空間”이 人間生命이라면 바로 그 空間과 時間을 다루는 것이 建築이 아니겠는가? 이 世上에 수많은 學問이 있다 하더라도 人類의 生命과 將來를 다루는 建築이야말로 가장 所重한 部門임을 알 때 建築家들의 自負와 義務의 重大함을 새삼 自覺해야만 할 줄안다.

人類의 問題點은 많다. 가난과 질병, 不幸과 不滿, 不信과 不條理, 資本과 努力, 自由와 平等, 冷戰 核武器 公害, 言語와 宗教, 人種과 國家 等等의 엄청난 問題들은 제 아무리 不可解라 할지라도 人間이 저지른 일기기에 神도 解決해 주지는 못하고 오직 人間만이 解決해야하고 人間만이 解決할 能力과 義務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險難한 問題들의 解決處理를 政治家나 教育家나 宗教家가 할 것이라고 믿을순 없다. 오직 있다면 高邁한 原初의 思想으로서의 藝術家들만이 解決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可能性과 現實과는 먼 距離가 있다. 여기에 긴 時間이 加担했을때 비로서 方案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人間이 아직 發見 못한 可能性을 發見하고 提案하고 發言하는 것이 바로 建築家인 것이고 이때까지 建築의 歷史가 그러했고 一面 現代의 知識과 資源으로서 實現 可能한 水準보다 훨씬 低下된 建築을 하고 있는 理由도 이 可能性과 實現과의 關係를 말해주는 좋은 証左인 것이다.

그러므로 建築은 未來의 아름다운 環境으로만을 指向하고 默默地 進行하는 進行詞인 것이다. 人間에 알맞는 環境은 人間의 單純하게 願하는 것만은 아니고, 自尊心이나 本能에서도 要求하는 것이다. 때문에 伊太利의 建築家인 “Gio Ponty”는 이 世上에서 가장 高級이고 最上의 形容詞는 “建築的이다.” 라는 말이라고 했다.

人間의 尊嚴性에 알맞는 生活水準을 向上시킨다는 일은 全人類의 集中된 努力으로서 우리의 環境을 創造하는 일뿐인 것이다. 建築家란 이 일을 目標로 삼고 이 目標로 向해 조용히 그리고 默默地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藝術을, 自己를 爲해 한다거나 藝術을 爲한다거나 藝術속에서 自己를 사랑하지 말고 스스로 藝術을 사랑하면 그때 藝術은 이 社會를 救援할 것이다.

무릇 創作이라함은 그 作家의 内部에서 隱密한 感動으로서 그의 全知 全情熱을 쏟아서 이룩되는 것인데 藝術이라는 側面에서 建築을 볼 때 他部門의 數多한 藝術과는 달리 計算이라든지 技術, 材料 等の 工學的 面이 多分히 加味되므로 한 空間을 占有하고 表現되는 美術(繪畫)이나, 空間을 占有하고 外部空間을 形成하는 彫刻等보다도 建築은 空間을 占有하고 内部空間을 創造하고 外部空間을 形成까지 하는 即, 空間造形이 되는 것으로 또는 音樂이나 繪畫 같이 99% 原形과 同一하게 複寫 錄音되어 數十萬個의 量産이 可能한 것에 비해 建築은 原形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點이다. 同一設計로 多棟을 建立했다하더라도 그 環境과 材質도 다 다른 것이고 寫眞으로 模型으로 同一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까지 建築의 寫眞이요 模型이고, 그속에서 人間이 生活할 수 없는 것이므로 Original은 原形 하나 뿐이 되는 것이다. 故로 他를 複寫藝術이라고 까지 부르게 되는 것이고 演劇 等은 原形은 하나이지만 그瞬間뿐이고 必要에 따라 再演 反復해야 하므로 瞬間藝術이라고까지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建築이야말로 唯一한 複寫나 同一이 없는 純粹性을 가진 藝術本然의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 建築이 서야할 땅엔 수많은 荊路가 있다. 即 悠久한 自然環境속에서 日增飛躍 變化하는 生活를 담아야한다는 點, 技術은 發展함과 比例해서 人間의 既存秩序를 變造시키고 既存概念의 王國을 滅亡시켜가고 權威를 낮게해서 더욱 職能的 分派作用과 量

産을 促進시켜 政治的, 經濟的 特權을 造成했고 何如間 地球上에 技術이 나타난 以後로 무언가 끝장이(人類) 나기 始作해 가는 것만 같아졌다.

現在 建築家들은 建築을 하나의 職業으로 看做하고 있으나 建築이 職業으로 될 때는 이미 그 建築은 藝術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自己의 生의 方法으로(生業) 藝術을 한다면 이는 藝術의 冒瀆이요, 또 藝術本然의 純粹한 體質에 違背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原初藝術의 發生當初가 어떤 目的이나 必要를 爲해서가 아니었고, 다만 倦怠와 無寧와 余裕에서 人間本能에서 始作되었고, 이러한 藝術이 人類歷史와 同時刻에 그 發端이 있었다는 點과 人類歷史를 오늘날까지 끝까지 버티고 證明해 주는 것이 바로 建築이기때 문이다. 人間은 이 世上에 태어나면서부터 生命을 가지고 行動을 繼續하지만 意味없는 無價值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生存과 存在의 意味로서 区分되어야 하겠고 勿論 存在에 도 理由야 있겠지만 生存에는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使命같은 것이 있음은 確實하다. 이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그무엇이 建築家로서는 創作이 되는 것으로서 宇宙萬物을神이 創造했다고 하면 空間造形을 創造한다는 創造라는 뜻에선 建築家は 神과 同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恐畏하게도 創作 이라는 것이 얼마나 尊高한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近來에 와서 建築에 機能的이어야 한다는 데 比重을 많이 둔다. 이 機能的이란 單語의 誤解는 많은 것 같다. 機能的이란 概念은 實用目的의 充足에서 價值的 領域까지의 複合體를 意味內容으로 하는 概念일 것이어야 할 것이고, 形을 주어진 課題의 內的 諸條件의 總體서부터만이 產出해 내려는 思想의 具體化를 意味해야 할 것이고, 最終의 形이 予知된 것이 아니고 合目的 思考와 目的에 關係없는 思考와의 創造的交流에서만이 發見되어야 할텐데 安逸과 便利만을 即興的으로 考案하면 機能的이다 라고 하고 使用目的에만 充足되면 또는 目前의 經濟的 條件만 解決이 되면 現實的過程에 手段의 簡便만 되면 機能的이다라고 錯覺을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

×

建築은 하나의 試圖의 表現이다. 試圖나 表現에는 어떠한 規制나 標準이 있을 수 없다. 完全히 自由奔放해야 할 것인데, 規格이나 方法의 範疇가 생기고 하물며 要求條件이 命令調로 나오고 있다. 이때 어느 쪽이 強者이고 어느 便이 弱者인지는 우리 現實에선 自明한데 弱者의 正當한 要求는 그 發言이 強硬해도 哀願에 지나지 않고 強者의 要請은 그 發言이 柔順해도 命令이 되는 마당에서야 建築家의 自由로운 創作이 나온다는 것은 至極히 어려운 現實인 것이다.

都市環境의 創造亦是 建築에 屬하는 것이며 都市計劃이란 名稱으로 近來 이 分野가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建築家의 創案한 都市計劃이 果然 自由로운 立場에서 大膽하게 되어 있는가? 即 創作의 純粹性에 어긋남이 없는가에 對해서는 建築과 같이 많은 疑問이 있는 것이다. 一例를 들어 計劃道路가 왜 國有地나 公有地나 河川을 따라 가야 할까? 이는 土地의 地上所有權이 私有일 境遇 土地保價의 費用이 建設의 予算에 주는 影響때문이었으나 이러한 規制下에서 果然 自由奔放한 都市計劃이 創案될 筈 없

는 것이고, 眞正한 都市計劃案이란 바랄 수가 없는 것이 된다. 기여코 眞正한 都市計劃이 이루어질려면 먼저 土地地上所有權의 解放없이는 不可能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다.

建築을 비롯한 모든 藝術은 藝術이라는 共同分母를 가지고 있다. 卽, 構造性, 造形性, 持續性, 忠實性, 幻想性, 空間性, 그리고 時間性 등이 될 것이다. 機械는 技術의 産物이요, 建築은 位相의 産物이다. 機械는 來日 더 좋은 機械가 나오면 오늘의 機械는 廢品이 되지만 建築은 그렇지 않다. 各種 藝術이 수많은 思潮의 流派를 거쳐서 今日에 이르렀지만, 그전 것을 버리지는 않았다. 바로 이것이 藝術과 機械(技術)와의 差異點이라고도 할 것이다.

政治家와 科學者와의 結托은, 科學者와 宗教와의 結托은 世上을 危殆롭게 한다. 歷史上 그 예는 許多하다. 그러나 政治家와 建築家와 提携는 建築家와 科學者, 建築家와 宗教家와의 提携는 人類를 위해 利로우면 利로웠지 害로울 순 없다고 生覺된다.

建築家란 諸般 社會問題를 疑心하면서도 諦念하는 것 같으면서도, 바로 그問題를 探求하고 解決에 努力하며 同時에 實踐하는 것이다. 建築家は 그저 默默地 未來를 꿈꾸며 純粹에로의 길로 걸어 가는 것이다.

아—獨高함이여, 아—孤寂함이여!